

주기도문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당신의 성도님을 지배하시기를 원하며, 주안에서 문안 드립니다. 우리가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다면 그 생활이 얼마나 행복하게 변화하겠습니까? 감사할 조건을 많이 찾으셔서 복된 신앙 생활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예배나 집회 등을 마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 주기도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기도의 본이 되는 기도문이므로 그 의미들을 알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범 기도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성도라면 누구나 암송해야 하는데, 주기도문을 외우는 모든 성도들이 그 오묘하신 뜻을 깊이 깨닫고 그 원리를 따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너무나 자주 외우기 때문에 소홀히 하기 쉽지만,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기도 생활의 모범을 삼고 따라야 할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에는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의 모든 기도의 올바른 정신이 가장 잘 나타나 있으며, 가장 간결하면서도 완전하게 요약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 주기도문 속에는 기도의 대상, 기도의 우선 순위, 내용 등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1.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2.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우선입니다.

☞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 하나님의 다스려 주심과 예수님을 위한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 나라에 임하옵시며

☞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3. 그 다음이 성도들 자신의 삶을 위한 기도입니다.

☞ 현재의 일상적 필요의 문제 :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 과거의 죄악과 서로간의 용서와 사랑의 문제 :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 미래의 생활 문제와 영적 도우심의 간구 :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4.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과 선서입니다.

☞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 아멘

☞ 첫 부분은 삼위일체(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① 하늘에 계신 : 이 말씀은 우선 우리 기도의 대상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늘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높으시고 전능하시며, 거룩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 성경구절 : 시편 115편 3절]

② 우리 아버지여 : 아무리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셔도 그 분이 우리와 관계가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 믿는 신자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참고 성경구절 : 요한복음 1장 12절]

③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되기를 기도 드린다는 뜻입니다. 즉, 찬송과 예배, 말씀에 순종, 하나님 일에 충성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가정, 일터에서 두루 이루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참고 성경구절 : 로마서 14장 6-8절]

나라이 임하옵시며

나라, 즉 하나님 나라는 천국을 의미하는데, 넓은 뜻으로는 주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세계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나라이 임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이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한다는 것이며, 그렇게 되면 모든 악의 세력이 소멸되며 완전한 평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 나라에서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도 그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천국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있듯이 땅에서도 사람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 둘째 부분은 사람에게 대한 기도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씀은 하루 먹을 음식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살면서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기독교는 현실적인 종교입니다. 주님은 결코 땅의 것을 소홀히 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참고 성경구절 :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하면 반드시 사면해 주십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죄 지은 사람을 먼저 용서해 주어야 자신의 죄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를 사함받는 방법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는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탄의 세력인 주는 파멸과 재앙의 시험이며,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연단으로 허락하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것은 첫번째 파멸과 재앙의 시험에 들지 않게 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또 악에서 구해 달라는 것도 같은 뜻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죄악과 방탕에 빠지게 하는 악에서 구원받게 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 세번째 주기도문의 마무리 부분입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나라는 하늘과 땅에 있는 영적, 육적인 모든 나라를 뜻하며, 권세도 마찬가지로, 영광은 사람과 천지 만물과 천사들에게서 받으실 영광입니다. 이러한 모든 나라, 권세, 영광이 그야말로 영원히 세세무궁토록 존재하신다는 고백이며 선서입니다.

[참고 성경구절 : 역대상 29장 11-14절]

아 멘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아멘은 이상과 같은 모든 기도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진실로 이루어지기 원한다는 의미이며 충성과 헌신을 다짐한다는 뜻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진실한 마음으로 외울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그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략한 기독교 용어 해설

- 알파와 오메가 -

헬라이어 알파벳의 첫 글자인 알파(A)와 끝 글자인 오메가(Ω)를 말하는데, 그 뜻은 하나님 자신이 이 천지를 처음 시작 하셨으며 마지막 때까지 주관하신다는 뜻입니다. 즉, 모든 만물의 시작과 끝이 되심을 말합니다. 곧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요, 마지막 심판 때 심판자가 되셔서 온 천지를 다스리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요한계시록 21장 6절)

예 배 안 내	주 일 예 배	1부 예배 : 오전 9시
		2부 영어 예배 : 오전 9시 (2층)
		3부 예배 : 오전 11시
		유*초등부 예배 : 오전 11시
		중*고등부 예배 : 오전 11시
	기 타 예 배	새벽 기도회 (매일) 오전 6시
		수요 삼일 예배 저녁 8시 30분
		금요 찬양 기도회 저녁 8시 30분
		중*고등부 금요 찬양예배 저녁 8시 30분
	정 기 모 임	화요일 / 한어 대학*청년부(영) 저녁 8시
		토요일 / 영어 대성경 공부(한) 오후 5시
		토요일 / 청소년 성경공부 저녁 8시
토요일 / 한국학교 오전 9시		

한인동산장로교회

NEW HOPE REFORMED CHURCH
 100 Herrmann Place, Yonkers, NY 10710
 사무실 : (914) 961-9250 / 1 (Fax 겸용)
 Website : <http://www.newhopeministry.net>

푸른...감람나무가 심겨지는 곳...

삐쩍 마른 모습

허름한 옷을 걸친 노인이 교회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인사를 하는 이도 없었고

눈여겨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는 낮을 알만한 사람을 찾아 웃음을 보냈으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에 도착한다는 연락을 했는데..."

"그 사람은 여러 해 전에 그 교회에서 오지로 파송했던 선교사였습니다."

여비조차 없어서 안식년에 고향을 찾을 수조차 없었던 가난한 선교사는 이제야 사역을 끝내고 돌아온 길이었습니다.

무안하기도 하고 민망했던 그는 다음에 자신을 알리기로 하고 말없이 돌아와 싸구려 판잣집 이층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요란한 행진곡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환호성 소리가 거리를 뒤흔드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밖을 내어다 보니 아프리카 사냥에서 이제 막 돌아 온 루즈벨트 대통령을 환영하는 행사였습니다.

순간 그는 하나님께 여쭙었습니다.

"주님, 무엇 때문입니까?"

루즈벨트는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도 저런 요란한 환영을 받는데 저는....

"그 때 그의 마음 속에서 재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푸른 감람나무 같은 너... 낙심하지 말아라. 너는 아직 하늘 나라에 도착하지 않았구나"

"저희로 하늘 나라에서 받을 환영과 위로로 생각하며 이 땅에 서의 수고를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누구인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음성도 들려왔습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 나의 수고를 주위에서 안 알아준다고 서운하고 실망하십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만날 때 고생했다 수고했다 하며 맨발로 나오셔서 크게 위로해 주시며 안아주시고 기뻐해 주실 겁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시52:8)